

도 하며 二層基壇 위에 五層의 塔身을 올려 놓고 相輪部에는 類例없는 風磨銅이라는 金銅製 頂部를 올린 것이 이 塔의 特色이라 할 수 있다. 먼저 基壇의 構成形式을 보면 二層基壇을 갖추었으나 上下基壇幅이 거의 同一하며 特히 基壇幅에 比하여 높이가 훨씬 높은 關係로 一見하여 單層基壇으로 誤認하기 쉽다. 上層基壇 隅柱는 在來의 完全한 角形柱와는 달리 隅柱와 같이 一種의 木柱(moulding)을 만들어 隅柱를 나타냈다. 上下 甲石은 두꺼운 長板石으로 構成하고 木柱이나 附加의 裝飾이 없다. 上層基壇甲石 上部에는 上層塔身을 받기 위한 두꺼운 二枚의 長台石을 끼워 놓고 있다. 各層의 塔身의 屋蓋石과 屋身은 各各 單石造로 되고 初層 屋身南面에는 門扉形式을 模刻하고 第二層 屋身도 四面에는 佛像을 刻하였다. 그리고 第三層 屋身石 四隅柱는 다시 內部에 副柱를 刻하였다. 特히 第二層 塔身과 最上部 風磨銅을 받는다. 基壇部는 그 石材의 材質과 形態가 判異하게 다른 것을 보아 單時代가 다른 것이 아닌가 或은 다른 것으로 補完한 것이 아닌가 推測된다. 各層의 屋蓋石 받침은 매우 纖弱하게 二段를 이루었으며 初마의 柱너마루曲率이 매우 심하고 落水面의 勾配가 추박하다. 初마端面은 거의 直角에 가깝고 落水面上에는 柱너마루의 形態가 조금 나타나 있었다.

相輪部는 新羅나 百濟塔에서 볼 수 없었던 것으로 口傳으로는 唐則天武后가 印度에서 가져다 보낸 것이라고 하나 전혀 믿을바 못되며 風磨銅의 形式이 喇嘛式 寶塔과 類似한 點에서 元의 文化的 影響을 많이 받았던 高麗中葉以後의 外來文化的 交涉狀態를 보여 주는 좋은 例라 하겠다. 特히 이 風磨銅의 平面形式이 敎天寺址塔과 類似한 點에서 注目할 만하다. 全體的으로 幅에 比하여 高가 細長하고 各層의 遞減率이 적은 點特히 初마曲線의 심한曲率 在來의 典型的인 細部手法의 退化된點에서 高麗中期以後를 넘어서 오히려 高麗末期的 傾向이 濃厚한 塔이라 하겠다. 끝으로 現地調査에 同行 協力하여 주신 崔容完氏와 李璟會氏의 勞苦에 對하여 謝意를 表하고저 한다.

## 李朝住宅의 窓과 門에 나타난 空間性

朱 南 哲

建築物에 있어서 窓과 門의 意義는 外部空間과 內部空間과의 媒介體로서의 역할이 一次的이다. 門을 通하여 外部空間(自然空間)에서 內部空間(人工空間)으로 出入하게 되며 또한 하나의 內部空間과 다른 內部空間을 연결시켜준다. 門이 通路로서의 기능에 그의 의의가 있음에 비하여 窓은 建築計劃原論的인 意義가 더 크다 窓을 通하여 外部空間으로부터 內部空間에 빛(光)공기를 도입한다. 그러나 窓과 門은 一次的인 의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外部空間과 內部空間을 視覺的으로 연결시켜주는 第二次的 的의를 갖게 된다.

人工空間은 바닥, 벽, 지붕으로 구성되어 하나의 閉鎖空間을 이루게 되나 窓과 門의 存在로서 어느 정도의 開放性을 갖게 된다. 이러한 開放性은 二〇年代의 近代建築에서 柱, 梁, 床이 荷重을 받게 됨으로서 組積式에서의 耐力壁의 表現을 意識적으로 추방하여 壁의 閉鎖性을 追放하게 되었다(註) 또한 內部空間의 構成材料를 外部까지 뻗어나가게 하며 外部空間의 바닥면과 內部空間의 바닥면을 동일 面상에 높음으로서 外部空間과 內部空間과의 융합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近代 유리의 多量生産으로서 全面유리窓(Japan de verre)이 出現됨으로서 內部空間(人工空間)에 外部空間(自然空間)을 도입하게 되었고 또한 內部空間에서 外部空間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오늘날 韓國의 많은 洋式住宅에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도리켜볼 때 우리 固有의 住宅樣式인 李朝住宅은 內部空間과 外部空間의 융합문제에 있어서 한층 積極적이었으며 선구적 역할을 하였었다. 李朝住宅의 窓과 門에는 유리를 使用하는 대신 창호지를 사용하였다. 창호지는 어느 정도의 空氣와 빛을 투과시키나 視覺的으로는 완전히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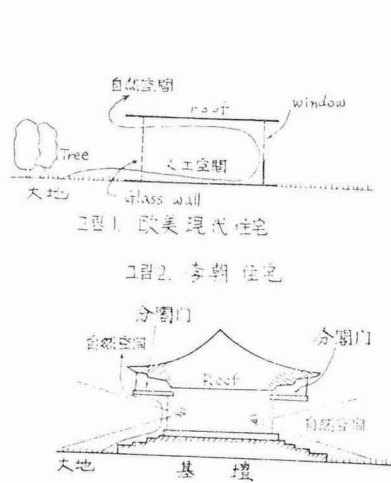


그림 1. 歐美現代住宅  
그림 2. 李朝住宅

그러나 外部空間과 內部空間의 융합문제에 있어서 現代歐美的 住宅과 李朝住宅이 서로 다른 점은 그 바다처리의 문제이다.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보듯이 歐美的 住宅은 大地의 바다과 內部空間의 바다면을 동등 Level로 하고 벽을 全面 유리로 함으로써 우리가 內部空間이 없더라도 外部空間과 內部空間은 잘 융

합되고 있다. 그러나 李朝住宅은 窓과 門의 構造의 특징으로서 外部空間과 內部空間의 융합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李朝住宅의 窓은 行廊의 밖안 들쭉으로 난 벽의 높은 곳에 난 들쭉 부엌, 광의 살창, 分閣 上部의 窓 이외에는 모든 중요한 室(안방, 전너방, 사방방 등)에는 문지방에서 거의 천장까지 이르는 亞字窓, 卍字窓, 卍字窓 등을 다다. 오늘날 이들을 窓이라 부르지는 않고 門이라 부르고 있으나 李朝人들은 窓이라 하였지 門이라 하지 않았다. 여기에 李朝人들이 생각한 窓의 개념이 建築計劃 原論의 문제물 떠나서 視覺의 인 第二次的 意義에 重點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大廳, 樓마루의 四方에는 分閣門을 달고 前記 窓의 밖에는 정자살 띠 살로 된 榻을 다다 이 들은 모두 접어들쇠에 매달게 되어 있다. 이로서 생각해 볼 때 李朝住宅은 外部空間과 內部空間을 합 문제물 한층 선구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室에 단 門은 出入의 문제물 떠나서 空間 융합의 문제에 이바지 하고 있는 것이다. 일단 접어들쇠에 매달면 하나의 閉鎖空間에 開放性을 주어 우리가 설사 內部空間에 앉어 있다 하더라도 自然 가운데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것에 더한층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은 大廳天井의 노출된 사가래가 外部로 뻗어나가서는 처마를 이루고 있는 점이다.

합되고 있다. 그러나 그림 2의 李朝住宅은 大地에 일단 基壇을 구축하고 이 위에 內部空間을 건축함으로써 分閣門을 접어들쇠에 매달다 하더라도 人間(眼)이 內部에 존재하지 않으면 內部空間과 外部空間은 적극적으로 융합될 수 없다. 이러한 것은 樓마루, 樓마루, 亭子 등에서 한층 적극적으로 나타난다.

이상으로서 생각하여 볼 때 李朝住宅은 설사 우리의 사용이 없었다 하더라도 현대구미주택보다 한결을 앞서서 外部空間과 內部空間의 융합문제를 해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李朝住宅은 넓은 垵地의 주위를 行廊과 空塔으로 둘러싸고 行廊의 外部에는 조고만 들쭉만을 달고 垵地안에 여거저기 세운 안채, 사랑채, 별당, 정자등에는 모두 접어들쇠에 달게 된 門과 커다란 窓을 달므로서 全體의 으로는 극히 閉鎖的이나 自體內에서는 극히 開放的인 空間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註, 建築學大系 7 X 空間論 太田實三五八 P 彰國社

### 慶州狼山西麓의 木塔址

朴 日 薰

慶州狼山은 新羅王都의 都心부에 位置한 長軸이 南北으로 나즈막한 姿勢로 起伏된 小丘陵山이다. 東으로 明活山과 對峙하여 그 사이에 普門平野가 있고 西로 九黃坪이 展開되고 半月城을 眺望한다. 일즉 新羅都城의 鎮山으로 神聖視된듯 南領中腹에는 善德女王陵을 爲始하여 그下麓에 四天王寺址 北嶺東麓에 皇福寺等 數 많은 寺刹이 지붕을 連하였던 建物の 遺墟址가 櫛比하다. 이번에 發見된 新羅時代의 所重한 木塔址가 바로 이 狼山西麓에 遺存되어 있었으나 지금까지 調査되지 못한은 燈下不明格으로 至極히 부끄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現狀 그대로 皮相的인 調査에 依하면 木塔址는 狼山北嶺西腹에 新羅末期의 巨儒 崔孤雲先生의 讀書堂遺墟址가 있는 西麓에서 三八m 距離의 水沓中(九黃里四四